

## 박 창 균 (서경대학교)

## 포스트모더니즘과 수학

흔히 오늘날을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한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해도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화적 성격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지시어가 되었다.

모더니즘을 이성중심의 근대주의라고 칭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포스트'는 시간적으로 근대 이후라는 '후' 근대주의라는 뜻과 더불어 근대를 반성하고 탈피하려는 '탈' 근대주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전자로 해석하면 모더니즘과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후자로 규정하면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과 극복 즉 단절이 강조된다. 본고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러하듯이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근대주의의 핵에 해당하는 과학도 포스트모더니즘의 무풍지대는 아니었다. 1960년을 전후한 '새로운 과학철학'의 대두는 과학에 대한 전통적 입장에 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포스트모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연과학에서 수행하는 실험은 더 이상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실험자체가 그 실험을 지지하는 많은 이론에 이미 의존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론들은 당대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문화와 사회의 그물망에 궁극적으로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

수학은 그 성격상 현실세계와 직접적으로 맞설 필요가 없는 은둔이 가능한 학문처럼 여겨지지만, 엄밀한 과학의 대명사인 수학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도도한 물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포스트모던주의에 근거하여 수학에 대한 전통적 입장들은 비판되어졌고 해체가 시도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수학의 정체성을 수학사를 통해 즉 역사적으로 나타난 증거를 통하여 확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적 배경과 수학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견해를 소개하고 이를 음미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학에 관한 포스트모던적 견해는 역사학자 Crowe가 수학과 역사에 대한 오해라고 부르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 대한 비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